

# 共食으로 만법 들이고 내는게 불법

19면에서 계속

그런데 가능성이 반반이래요. 그러는 와중에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집안에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더불어서, 그리고 있는 참나에 업마지만 어떻게 해줘야 할 줄도 몰랐었고 한생각을 어떻게 낼 지 몰랐습니다. 그럴 때 그냥 내가 이거야 저거야 하면 문제가 너무 많이 제게 다가와 저를 살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이들하고 그냥 땅 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다 비우고 사는 게 뭔가 하면서, 그러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아주 희망의 빛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서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그냥 놓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는데 '봉탑을 해야지. 조상님과 주인공이 틀어 아니잖나.' 이러면서 아, 갑자기 너무나 강하게 저에게 왔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준비된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원에 올라가 스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막내거든요. 위에 형님이 천주교를 다니시니까 사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고 그냥 무심하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강하게 와서 스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성불과 둘 아닌 도리

속제를 내 주시더군요. 그 동안 법당으로 넘어온 날마다 그냥 아침에 올라가는 게 어느 순간 제 생활이 돼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그냥 한번 인연이 됐던 분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또 스님을 찾아보았더니 그 자리에다 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저희 집에 밭도 팔도 없이 스님 두 분께서 오시겠다고. 저는 아무 준비도 없는데 꼭 오셔서 공양을 하신다고 하기에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여자 네 사람에게 시키더라고요. 제가, 밥을 하라고 그러는데 밥 두 그릇만 달랑 해 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갖 쓰는 남자 어른들이 한 네명 정도가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밥을 먹고 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밥이 두 그릇밖에 없거든요. 그러는 참나에 그냥 상이 여지없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데 스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서 다시 다른 교차상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그것을 다 드시고 승승까지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꼭 드시고 가신다고 하기에 제가 옛날 아이같이 불태는 데다 밥을 해서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할머니가 오셔서 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밥을 해 드렸죠. 그리고 나니까 한번은 아이들이 밥을 해 달래요. 그래서 또 밥을 해 주고 옷까지 해서 주고

나니까 저에게 막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면서 동시에 아이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앉을 자리 설 자리 배워가면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활나할나 스님께서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법당에도 다녀가고.

스님: 그래 공부하는 사람은 보살님만 아니라 법당에 오면은 부처님 모습과 자기 모습과 둘 아니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노래도 만들어 놔죠? 둘 아니게 하세요. 동글게 하시면 그냥 그냥, 절을 일배를 한다 하더라도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 아닙니까. 부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틀어 아닌 까닭에 공용으로 할 수 있다.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할 수 있다. 공식이라는 것은 세상만사 다 겸해서 말하는 겁니다. 요만한 거 하나 버림없이, 그래서 공식으로만 법을 들이고 내고 하는 도리가 바로 우리들의 법이며 또 보살의 법이며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운다고 해서 누구한테나 바깥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내면에서 듣고 내면으로 배우세요. 바깥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4: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해 나가면은 전자에, 형님들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그랬나요? 질문4: 네.

스님: 천주교를 믿어도 주처를 안에 다 놓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그렇죠.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을 믿든지 간에 내면으로 진짜로 믿으면서 하셔야 되죠. 그리고 걱정 근심으로 하지 마시고 금방 내일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오늘 웃으면서 사세요.

질문4: 영타에 조상님을 모실려고 합니다. 스님: 보살님 마음 탓에 먼저 해요.

질문4: 예.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가톨릭을 믿는 사람도 밥 먹여서, 바깥으로 믿기 때문에 그 상을 치워 버리지 않았어요? 상을 치워 버렸거든. 그래서 상을 치워버리지 않게 하는 도리가 바로 봉탑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둘 아니게 하는 것이 봉탑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실질을 옮길 수 있어야만 이 조상들도 다 봉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거죠.

질문4: 그리고 여섯 살 먹은 아이가요 엄마,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스님: 네.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말고 예를 데리고 절에 한 번씩 다녀가시고 그러세요. 보면 보는 대로 배울 게 많은 테니까요.

질문5: 저는 서울여대 불교학행회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전에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언제나 밝으신 아버지셨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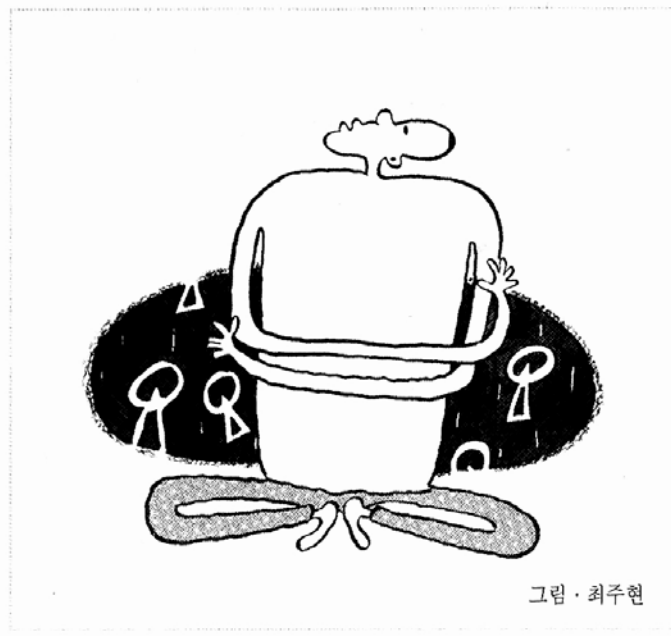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부처도 우리와 둘 아니고 道の 이름도 둘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에 道 있어요

저에게는 그 사실이 좀 믿기지 않았거든요. 받아들여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집에 가는데 그 때마다 많이 마시고 복수가 차서 아버지를 뵈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 뿌리가 없으면 못살아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요즘에 아버지 마음공부 하는데 약간의 회의를 가지신 것 같아요. 동생이 요번에 수능을 봤는데 아버지가 관을 많이 하시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많이 마음공부에 회의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을 해야 하며 아버지를 위해 저나 저희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관을 해야 아버지의 병이 빨리 쾌유될 수 있는지요.

스님: 아버지가 마음공부에 회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듯이,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살지 뿌리가 없

으면 못살아. 우리 사람도 같은 거야. 그래서 달마대사도 모두 알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도 신 한쪽은 거기 두고 한쪽만 주장자에 걸고 나오셨어. 그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거와 같이 신 한쪽은 항상, 자기 생명력이 붙어 있어서 살 뜻이 항상 있어. 죽어도 그건 있는 거고 살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진짜로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그냥 나를 패대기치고 믿으시라고 그래. 내란 모습은 누구니까 다 공했어. 생명의 원소는 영원히 살지만 이 모습은 공해서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습을 살게 하려면 바로 자기 주인공의 심부름꾼이 되면서 진짜로 다 보아 되지,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법당에 와도 둘 아니게 생각할 수 있겠지? 동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가진다면 법당에 와서 절을 한번 해도 삼배가 돼. 동그렇게 하고 절을 하게 되면 일배가 삼배가 되는 거야. 세 번만 해도 구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삼배를 올린다면 공체로서 전부 정성을 들이는 거

나 한가지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 얘기해 드리고, 심심하시니까 생각을 탄 데다 두는 거니까 탄 데다 두지 않게 마음이 좀 편안하게 계시게끔 말씀 드려. 질문5: 여기 오셨어요. 스님: 여기 계시거든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거를 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믿음이 희박해지는 게 아니고 되든 안되든 뿌리는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냥 다 역할을 가지고 있어. 아드님도 한쪽이 부족해서 그렇지 관찮게 돼요. 그렇게 한다면 자라는 아이도 그렇고 아버지도 합들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내가 말을 예전같이 재빠르게 못하더라도 의미있게 생각하고 뜻으로 하신다면 열배 백배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진짜로 자기를 못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누구를 믿고 밭을 때 바요? 자기밭에는 없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았습니까. 오늘 잘 듣고 가셔서 깨어있는 소리를 내기 못했어 바깥으로 말을 하신다면, 넓히고 동글려서 잘 해 보세요. 그러면 하는 대로 차원이 높아지면 집안이 편안해지면서 웃음이 생길 겁니다.

질문5: 저희가 공부해 나가는데 중에 지금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마음에 부합이 돼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은 나의 생각으로만 하는 행동인지를 저희가 실제 모르고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견성을 하지는 못하였잖아요. 그런데 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주인공에 대한 간절하고 확고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합이 있는 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님: 그렇죠. 우리 생활이 그대로 도예요. 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을 떠나서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처도 우리와 둘이 아니고 도라는 이름도 우리와 둘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생활에 다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도를 깨우겠다 깨우치지 못했다를 뛰어넘으세요. 그 생각을 버리고 뛰어넘으세요. 버리니까 그냥 아예 개천에다 풀이 박지 마시고 자기 원소 주인공에 그냥 놔 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도예요. 무슨 별 다르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신앙 안하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여러 말 할 거 없이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존경하고, 알든지 모르든지 존경하시란 말입니다. 나쁘든지 좋든지 존경하라는 겁니다. 무슨 좋은 사람만 존경하고 나쁜 사람은 존경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이 있다 하면은 존경하라는 얘깁니다. 존경하게 되면 사람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화할테고 또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화할테니까요. 활나할나 바뀌지니까요.

그렇게 한번 응용해 보시면 사람이 모습은 그냥 놔두고도 마음이 한 참나에 다른 호성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을 한번 지어서 잘해 보세요. 진짜로 믿고요. 그러면 자기 주인공이 때로는 보디가드가 되고 때로는 지장이 되고 때로는 칠성이 되고 때로는 허공신이 되고 때로는 용신이 되어서 필요한대로 화해서 돌아옵니다. 이 소리를 모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들 이 소리를 잘 들어서 행하신다면 우리가 도인 아닌 도인으로, 도인의 행으로서 살고 있다. 그러다보면 요다음에도 그렇고 그냥 도인이 되는 거죠. 도인이죠 뭐.

스님들이 입산할 때에 머리를 깎는데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덧없이 그냥, 자라는 풀을 깎듯이 깎아버리고 원 하나만 남기려고 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고 나면 또 자랍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깎고 나면은 또 자라나. 또 자라면 마찬가지로 되는데 또 자라다 나지 않는, 나지 않고도 남이 있다면 함이 없이 하고, 또 깎지 않으면서도 깎고, 깎으면서도 깎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선사들이 산에서 수염 깎을래야 도구도 없고 머리 깎을래야 별로 깎을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른 겁니다. 멋으로 기른 게 아니라.

생명있으면 모두 존중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를 다 이해 할 수 있고 남에게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되면 요만한 것 하나 이해 안가는 게 없습니까. 이해를 못해서 부처를 욕하는 겁니다. 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 차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은 공신(共身)이다. 부처님이 만분이 계신다 해도 일불인 거죠. 그럼 열심히 하셔서 재미있는 얘기 또 다음에 들려주세요.

꽃 핀 거 보면은 좋죠? 보기 좋죠? 우담바라라고 하고 연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였느냐?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도 아름답기 때문에 방편으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꽃입니다. 마음의 꽃. 그래서 우리가 행을 잘 하면 꽃이 허공을 날라 다니면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꽃이 뭐니까,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 허공으로 다니면서 활나할나 행하신다. 함이 없이 하신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신도님들만 보면 정말 입이 이만쯤 벌어지고 좋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모두 생각들 깊이 하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꽃 핀 거 보면은 좋죠? 보기 좋죠? 우담바라라고 하고 연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였느냐?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도 아름답기 때문에 방편으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꽃입니다. 마음의 꽃. 그래서 우리가 행을 잘 하면 꽃이 허공을 날라 다니면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꽃이 뭐니까,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 허공으로 다니면서 활나할나 행하신다. 함이 없이 하신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신도님들만 보면 정말 입이 이만쯤 벌어지고 좋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모두 생각들 깊이 하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문은 2000년 1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고침 제296호 19면 기사중 첫번째 질문의 답변중 13째줄 '자유스럽게 살아가려면' 다음에 '모든'이, 두번째 질문답변중 6째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다음에 '합나다'가 빠졌기에 바로잡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을 열면 새 하늘이 열린다!

##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체험의 신세계가 열린다

실명 구도소설

# 해인의 비밀

1氣의 회로를 찾아라

최현규 지음

312쪽 8,000원 (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전 3권 2권, 3권은 곧 출간됩니다.)



海印 (화엄경)의 '능인해인삼매중능인海印三昧'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우주의 참모습이 그대로 물 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하고,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그렸다는 (해인도)는 '심바라밀도'라고도 불리는데, 호풍환우呼風喚雨와 이산초해移山超海 -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며,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담긴 신비의 그림이라 전해진다. <격암유록>에는 '하늘 해인을 구하면 모두 극락에 들어간다'求天福印 皆入極樂'란 구절이 있다.

권스승 이 책속의 실존인물로, 소년 시절 해인의 수수께끼에 의문을 풀어 평생의 탐구와 수련 끝에 마침내 해인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신비를 깨닫는 氣의 회로를 열어 놀라운 도력으로써 세상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권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모종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다.

氣회로 해인의 깨달음, 강력한 힘으로 직계는 한 인간의 운명과 질병, 크기는 현실세계와 역사까지 좌우하는 氣의 '지도', 氣회로의 놀라운 실재를 밝힌 이 책은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현상 등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해답을 공개한다.

호풍환우呼風喚雨 '비를 오게 했다면 멈출 수도 있겠지요. 우주와 하나가 된 자신을 믿으세요.' 권스승의 말에 오촌질의 손이 친히 움직이더니 손바닥이 오르러지고 있었다. 주먹을 쥐자 비가 거짓 말처럼 멈춰져 있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책의 미래 앞에서 당신은 삶이 통째로 바뀔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독자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신비의 '氣회로' 수록! '권스승'이 손수 마련한 '氣회로'를 통해 질병 치료와 氣체험,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서울시 종로구 한서동 171번지 원서빌딩, 책방 정신세계 공회문집(02)737-8115  
안양점(0343)466-2208, 원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전주점(063)246-4888, 대구점(053)943-4824, 부산점(051)294-8545, 이산점(055)248-5599